

# 건강보험 심사평가업무의 국제화



**윤석준** 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2014년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어떠한가? 밝음과 어두움이 교차하는 것 같다. 서울 강남 거리에 나가보면 세계 어느 나라 대도시에도 가도 느껴 보지 못한 화려함과 정돈됨을 지켜 볼 수 있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표정은 무척 밝아 보인다. 연휴 때면 인천 공항을 통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주한 장면을 드물지 않게 목격한다. 하지만 최근 세월호 사태에서 보듯이 어처구니 없는 대형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경제 수준은 이제 겨우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셈인데 사회 인프라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상태로 여겨진다.

다행스럽게도 보건의료제도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고 있다. 다만, OECD의 지적과 같이 보장 범위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해 보인다. 최근 이러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세계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필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연구소장으로 일했던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심평원을 방문한 여러 나라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한결 같이 대한민국이 빠른 시간동안에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한 원동력을 알고 싶어 한다. 더 나아가 관리가 가능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배워가기 원한다. 특히, 심평원의 전산화된 심사평가 시스템을 매우 부러워하고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는 내부의 효율성 제고라는 커다란 숙제 해결과 더불어 국제화를 위해 과감하게 노력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선진국으로부터는 더욱 더 많은 지혜를 배우면서 동시에 저개발국가에게는 심사평가 업무를 포함한 구체적인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이다. 이렇게 되어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동반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심사평가업무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심평원 업무가 지금보다 더 많은 부분이 영어 등 국제 공용어로 표현되어야 할 것 같다. 물론, 외국인들에게 소개할 때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업무 자체가 한글로만 되어 있는 상황을 외국 방문객과 지켜 볼 때 가끔은 마음에 걸린다.

둘째, 심평원 업무의 국제화를 위해서 내부 직원이 보다 다양한 국제적 역량을 갖춰야 할 것 같다. 업무와 관련된 단기 해외 출장을 비롯해 관련 국제기관 장기 파견 까지 DNA 자체를 국제화하기 위한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 같다.

셋째, 국제화와 관련된 미래 전략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듬어져야 할 것 같다. 이 부분은 심평원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도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와 같이, 국제화를 앞당기기 위해 최근 심평원은 미국 CMS 관계자 등을 초청해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이번호 정책현안에서는 국제세미나에서 다뤄진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해 가고자 한다. 우선, 제이 머천트 CMS 국제협력 국장은 ‘미국 CMS와 심평원의 협력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CMS와 심평원의 협력내용과 향후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그리고 에드워드 노턴 교수는 ‘미국 의료개혁의 경험과 시사점’을 통해 미국 의료개혁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특별히 장기요양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노인의료비 지출에 있어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김강립 공사참사관은 ‘제네바 보건관련 국제기구 동향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기여방안’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심평원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밖에도, HIRA 연구에서 평가연구팀 황수희 부연구위원은 ‘만성 폐색성 폐질환 질 평가 지표 개발’에서 COPD 환자 관리의 질 향상과 요양급여 적정성 도모를 위한 질 평가체계 구축 과정과 실제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협력통계팀 김경훈 부연구위원은 ‘중증도 보정 모형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에서 현재 적정성 평가에 있어 객관적인 평가결과 산출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증도 보정 모형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별 고려사항 등을 설명하였다.

진료경향분석에는 권의정 주임연구원의 ‘치아흡메우기 건강보험 급여적용 이후 진료경향에 관한 원고가 게재되었다. 마지막으로, 해외동향에는 정은선 주임연구원이 ‘영국의 생애말기 돌봄 전략’을, 자원기술정책연구팀 노현승 부연구위원이 ‘미국 아급성기 의료체계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시범사업’을, 심사연구팀 김교현 주임연구원이 ‘보건의료재정 지속가능성 OECD 협동네트워크 3차 회의 참석보고’에 대한 원고를 작성해 주었다. 